

하나금융지주 조직새신

# 하나은행, '손님 우선주의' 확립... 글로벌 경쟁력 키운다

차기 하나은행장에 이호성 내정  
진성영업 통해 글로벌 수익 확대

강성목 하나증권 대표이사 연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을 앞두고 핵심 계열사인 은행장을 교체했다. 트래블로그 카드로 소비자의 만족감과 수익성을 극대화시킨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이 주인공이다. 하나금융과 하나은행이 줄곧 강조한 '손님 우선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글로벌 수익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 ◆ 손님·현장 중심 조직문화 혁신

하나금융그룹은 최근 그룹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주계열사인 하나은행장 후보로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을 추천했다.

그룹입추위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불확실성이 증대



이호성  
하나은행장 후보

되고 있다"며 "위험관리와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하고 내실있는 영업으로 손님과 현장중심의 조직문화를 이끌어갈 인물로 이호성 사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964년생으로 대구 중앙상업고를 졸업하고 1992년 하나은행에 입행했다. 강남서초영업본부장, 중앙영업그룹장, 영남영업그룹장, 영

업그룹장을 거쳤다.

특히 이 후보자는 하나카드에서 해외여행 특화카드인 트래블로그 카드를 흥행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트래블로그 카드는 해외 가맹점을 이용하거나 해외의 ATM에서 현금인출시 수수료가 무료다. 타 카드와 구분되는 점은 소비자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처음 트래블로그 카드는 하나은행 계좌를 개설·연동한 뒤 하나머니 앱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하나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번거롭다는 지적에 따라 고객이 쓰던 계좌 그대로 연동해 트래블로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 것.

고객을 우선하는 서비스는 실적으로 나타났다. 하나카드의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1844억원이다. 이 후보자가 하나카드 사장으로 취임했던

2023년, 3분기(1274억원)와 비교하면 45%가량 증가했다. 금융지주계열 카드사 중 가장 가파른 증가세다.

이는 하나금융의 '손님 우선주의' 원칙과도 일맥상통한다. 하나은행에서도 손님과 회사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단계적 영업이 아닌 진성영업을 추구한다.

이 행장 내정자는 공식 취임 이후 글로벌 부문 수익확대를 꾀할 전망이다.

### ◆ 내부통제 강화...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연임 가능성 커져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의 연임 가능성도 커졌다.

함 회장은 지난 2022년 3월 취임해 내년 3월 임기가 종료된다. 하나금융은 최근 지배구조 내부 규범을 개정했다.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0조8이사의 재임연령은 만 70세까지로 하되 재임중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

종임기는 해당일 이후 최초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했다. 2028년 3월까지 연임이 가능해졌다.

또 내부통제부문에 힘을 실은 것도 함 회장의 연임에 무게를 실는다. 하나금융은 하나은행에는 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하나증권에는 강성목 대표이사를 연임시켰다. 이승열 현 하나은행장은 부행장으로 그룹의 안정적인 경영관리와 기업가치 제고에 전념한다. 함 회장과 함께 내부에선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부문을 강화하고, 주계열사를 통해 변화를 시도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하나금융 관계사 후보들은 추후 개최되는 각 사 임추위와 이사회, 주주총회 등을 거쳐 선임이 마무리된다. 임기는 은행과 카드는 2026년 12월 말, 증권은 2025년 12월 말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하나카드, 법인 등 영업 강화... 非은행 핵심 계열사 육성

차기 대표에 성영수 부행장 내정  
영업통 평가... 법인시장 진출 박차

하나금융지주가 차기 하나카드를 이끌 적임자로 성영수 하나은행 부행장(사진)을 낙점했다.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이 하나은행장으로 영전하는 만큼 시작부터 시험대에 올랐다.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는 차기 하나카드 대표 후보로 성



영수 하나은행 부행장을 내정했다. 이호성 사장 후임으로 지휘봉을 잡으면서 '여행은하나카드'란 공식에 이어 법인카드

시장에서도 입지를 다져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성 부행장은 1965년생이다. 진주중앙고를 졸업한 뒤 고려대에서 행정학

을 전공했다. 이후 하나은행 입행 후 ▲경기영업본부장 ▲외환사업단장 ▲기업금융전담역 ▲하나은행 경기영업본부장 ▲CIB그룹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기업그룹장으로 재임 중이다. 입행 후 영업 일선에서 경험을 쌓았던 점에서 이호성 사장과 궤를 같이 한다.

하나금융은 또한번 '영업통'을 선택했다. 성 부행장은 하나은행 영업1부 부장에 이어 경기영업본부장을 연달

아 지냈던 만큼 그룹 내에서 영업의 잔뼈가 굵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영업통으로 불리는 이 사장 체제 아래서 업계 내 입지를 확대했던 만큼 영업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나금융은 법인카드 영업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성 부행장은 구로공단과 인천에서 기업금융전담역을 맡아 관 삼아 지점장직에 오른 바 있다. 기업그룹장을 지낸 데다 앞서 CIB그룹

장으로서 인수금융에 관한 역량을 갖췄다. 그간 카드사들이 진입 속도를 늦췄던 분야에서 새 공식을 만드는 하나카드의 영업전략에 꼭 맞는 셈이다.

하나금융은 성 부행장의 하나카드 사장 추천 배경을 두고 "하나은행에서 쌓은 기업 영업 부문과 외환 부문 경력을 토대로 최근 성장세를 나타내는 법인카드 시장과 트래블로그 등 글로벌 관련 상품의 시장 내 위치를 확립하고 그룹의 비은행 부문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회사로 성장시킬 수 있는 책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 교통·인프라 갖춘 신개념 지식산업센터... 삼성디지털시티 등 직주근접

## Q 르포

###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

잠실올림픽주경기장 3배 크기 호텔급 시설 등 하이엔드 표방

"우리나라에서 지식산업센터(이하 지식산)로 연면적이 10만평을 넘는 곳은 현재 두 곳밖에 없고,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가 준공하면 세 곳이 됩니다. 접근성이 좋은 대로변에 위치하고, 주변에 주거지가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내부에 편의시설까지 다 갖춰져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개념의 지식산이라고 봐야 합니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삼성삼거리 인근에 들어서는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는 지하 6층, 지상 최대 33층, 5개 동으로 구성된다.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며, 준공은 오는 2029년으로 예정됐다.

부지는 원래 아모레퍼시픽 수원공장 이었던 곳으로 연면적이 34만6350㎡(10만4954평)에 달한다. 잠실올림픽주경기장 3배 크기로 롯데월드타워보다도 넓다고 보면 된다. 현재 지식산 중에서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 모형도.

는 '오산현대캐러타워'와 '다산현대프리미어캐팜스' 정도만 연면적이 10만평 안팎이다.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의 입지는 주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했던 곳이다. 인근에서 보면 지식산으로는 '시그니처 광교 2차' 이후 2년 만의 신규 물량이다. '흥덕IT밸리'가 10년 전에 입주했는데 현재 공실이 없는 상태다. 이에 반해 삼성디지털시티와 가까워 협력업체 등 배후 수요는 풍부하다.

아울러 그간 지식산의 단점으로 꼽혔던

교통과 인프라 시설도 잘 갖췄다. 단지 바로 앞 중부대로(42번국도)를 통해 주변 산업단지로 이동하기에 편리하고,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IC에서 약 4.7km 거리다. 인덕원~동탄간 복선전철은 일부 구간이 착공에 들어갔으며,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가 입주하는 2029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기업들이 지식산에 들어오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인재를 수월하게 뽑기 위해서인데 주변에 주거지가 잘 형성되어 있어 직주근접이 가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 건물주택에 마련된 모델 내부. /안상미 기자

능하다"며 "10~15분이면 광역교통망에도 접근이 가능한 위치"라고 설명했다.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는 하이엔드 지식산을 표방했다. 호텔급 커뮤니티 시설과 함께 입주자 전용 컨시어지도 도입한다.

커뮤니티시설로는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세미나 룸과 미팅룸, 리셉션 라운지 등이 들어서며, 영상촬영 및 제작 등을 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도 예정되어 있다. 휴식을 위해서는 게임룸과 피트니스클럽이 생긴다.

분양가는 동이나 층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3.3㎡당 평균 2000만원 안팎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0

## 분양 캘린더

### 11개 단지 7641가구 분양

12월 셋째 주에는 전국 11개 단지 총 7641가구(일반분양 5329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1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역센트럴아파트',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역라운 프라이빗리버포레', 경기 평택시 장안동 '브레인시티푸르지오'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건본주택은 서울 중랑구 상봉동 '더샵퍼스트월드' 1곳이 오픈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일원에 '곤지암역센트럴아파트'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2층, 4개동, 전용면적 84~110㎡, 총 347가구 규모다.

포스코이앤씨는 서울 중랑구 상봉동 일원에서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을 통해 주상복합 아파트 '더샵퍼스트월드'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8층~지상 최고 49층, 5개동, 아파트는 전용면적 39~118㎡ 총 999가구이며, 이 중 아파트 총 800가구를 금회 공급할 예정이다.

/전지원 기자 jiw13@